

《稗林》과 《大東野乘》의 異同

—所收書目 相互比較—

鄭 亨 愚*

<目 次>

- | | |
|----------------|--------------|
| I. 緒 言 | IV. 記事形式의 比較 |
| II. 現存本의 種類 | V. 結 語 |
| III. 所收書目 相互比較 | |

I. 緒 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년 전에 日本의 末松保和씨는 「李朝의 野史叢書에 대하여」라는 論考를 발표하고, 거기에서 李朝 野史叢書의 成立 및 그 發展 經緯를 해명하였다.¹⁾ 그의 論考를 본 것을 계기로 筆者는 역시 우리나라 野史叢書중의 하나인 金鑰 輯成의 《倉可樓外史》에 관한, 아직 公開되지 못한 몇 가지문제를 起草한 바가 있었다.²⁾ 위에 적은 筆者의 小論속에서도 이미 지적해 둔 바와 같이, 末松保和씨는 李朝의 주요한 野史叢書를 비로소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考究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書誌學 研究, 특히 野史叢書 研究史上 커다란 업적을 남겨 놓았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末松保和씨의 前掲 論考는 李朝의 野史叢書를 주로 綜合的인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것의 個別的·分析的 檢討는 여전히 필요한 課題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末松保和씨의 該 論考가 발표되고난 이후에 現存 野史叢書 중에서도 그 收錄 範圍가

*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助教授.

1) 末松保和씨의 同 論文은 애당초 1966年 2月 「學習院大學 文學部 研究年報」 第12輯에 發表했던 것이나, 同年 7月 그의 著書 《靑丘史草》 第2冊에 다시 轉載하고 있다.

2) 鄭亨愚, 「倉可樓外史의 篇目」, 史學會誌, 延世大學校 史學研究會, 1971年 8月, 第17·18號 (趙義高 博士 停年退任 紀念 特輯號)

가장 龐大한 異本 《稗林》이³⁾ 새로이 國內에서 刊行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末松保和씨에 의하여 다루어진 바 있는, 既往의 「靜嘉堂文庫」所藏本 《稗林》과 새로이 國內에서 刊行된 探求堂本 《稗林》과를 對比·檢討하는 일은 韓國書誌學 또는 韓國野史叢書의 研究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의 하나라고도 생각된다. 전기한 筆者의 小論 또한 李朝의 野史叢書를 個別的·分析的인 方向에서 조사해 보려는 작업의 一環이었다.

이러한 뜻에서 筆者는 末松保和씨의 前掲書 《靑丘史草》第2 所收 「李朝의 野史叢書에 대하여」에서 收錄한 靜嘉堂文庫所藏本 《稗林》(大東稗林)과 探求堂 景印 縮刷版本 《稗林》과를 對比하는 한편, 나아가서 既往의 《大東野乘》(古書刊行會本, 慶熙出版社 景印本)과 上記 2種의 《稗林》과의 所收書目を 相互比較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末松保和씨가 말한 바와 같이, ‘野史는 各 個人의 隨筆的 著作 中에 順序없이 散在함에 지나지 못하던 價値있는 記事를 拔萃하여 一貫된 歷史書로 만든 것’이고,⁴⁾ 그럼으로써 “國史와 野史와의 사이에는 絶對的인 구별은 있을 수 없다”⁵⁾고 할 수 있을 진대, 을 바른 國史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野史叢書의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本稿에서는 다만 《稗林》 및 《大東野乘》所收書目を 相互比較하는 한편, 兩 叢書의 現存本の 種類에 대한 筆者의 所見을 添加함에 그치고, 各 叢書에 收錄된 하나 하나의 野史의 記事內容의 異同까지는 比較하지 않으려 함을 밝혀 두는 바이다. 所收書目の 比較가 記事內容의 그것에 앞서야 할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기도하다.

II. 現存本の 種類

寫本, 活版本 및 景印本을 포함한 《稗林》 및 《大東野乘》의 종류가 모두 몇 가지가 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探求堂本 《稗林》과 靜嘉堂文庫本 《稗林》, 그리고 兩 《稗林》과 既往의 《大東野乘》과의 所收

3) 稗林, 서울, 探求堂, 1969. (景印 縮刷版 10冊).

4) 末松保和, 《靑丘史草》第2, 東京, 笠井出版印刷社, 1966, p. 241.

5) ibid. p. 251.

書目を 相互比較함에 앞서서, 지금까지 알려진 現存本の 書誌的 내용과 함께 그 收藏·傳來 經緯를 다시 한 번 개관·정리하여 두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 같다.

먼저 《稗林》의 종류에 대해서는, 末松保和씨는 ① 東洋文庫 所藏本(寫本, 9冊)과 ② 靜嘉堂文庫 所藏本(寫本, 125冊, 所收書目 67種)과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⁶⁾

前者는 稗林 所收書目 中の 李宜哲輯, 「修書雜識」 9冊 만의 未完本으로 어떤 경로로서인지 幣原 坦씨가 收藏하던 것이나 그후 同씨에 의하여 東洋文庫에 寄贈한 것이다. 本書 「修書雜識」의 記事는 英祖 庚午(1750)에서 시작하여 正祖 戊午(1798) 11월에 끝 맺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⁷⁾ 그런데 《稗林》의 輯成者로 알려진 李宜哲(字 原明, 號 陶湖·文庵)은 肅宗 28年(1702)에 나서 正祖 2年(1778)에 죽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末松保和씨는 本書가 李宜哲의 死後에 누군가에 의하여 繼書·追錄된 것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⁸⁾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大阪市立圖書館 所藏의 「修書雜誌」(寫本, 6冊)에 대한 《古鮮冊譜》(第2冊, p. 826)의 記錄은 英祖 庚午(1750)에서 시작하여 正祖 元年(1777), 즉 宜哲의 죽은 前年까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것이 宜哲의 原著일 것이라고 하였다.⁹⁾ 따라서 修書雜識」 9冊에 지나지 못하는 東洋文庫 所藏本 《稗林》은 輯成者 宜哲이 죽은 이후 20年 동안에 걸친 記事를 누군가가 增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後者 靜嘉堂文庫本 《稗林》에 대해서 末松保和씨는 “(東洋文庫本에 비해서) 그 冊數가 훨씬 많은 것이긴 하지만, 淺見倫太郎씨의 《朝鮮法制史稿》의 「參考資料目錄」에 紹介된 바 있는 「我我錄 大東稗林本 寫 2冊」에서의 《我我錄》이 收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전히 完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¹⁰⁾ 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本 靜嘉堂文庫本の 第1冊에서부터 第28冊까지에 걸쳐 收錄된 「列朝記事」 바로 다음에 配置된 「定弁錄」 23卷이 正祖 元年

6) ibid. p. 246.

7) loc. cit.

8) loc. cit.

9) loc. cit.

10) loc. cit.

(1777)에서 시작하여 純祖 10年(1810)까지의 30餘年間の 黨論에 관한 一大編年史임을 미루어, 本書 또한 後人이 增輯한 것일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本書는 매우 훌륭한 寫本이며, 版心 下端에 孝田堂藏이라 印出되어 있고, 第3·4卷首에 捺印된 두 개의 所藏印「孝田」 및 「泰登沈魯崇印」이 있는 것에 言及하여, 本書가 沈魯崇의 家藏本이었을 것이다.”¹²⁾라고 하였다.

끝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1969년에 探求堂에서 새로이 景印 縮刷本 《稗林》이 刊行되었다. 本書의 最終書「修書雜誌」의 記事는 역시 英祖庚午(1750) 2月에서부터 시작하여 正祖戊戌(1778) 2(3)月에 이르고 있다. 이를 上記《古鮮冊譜》에서 지적된 大阪市立圖書館 所藏「修書雜誌」(寫本, 6冊)의 記事가 기록된 期間과 비교해 보면, 兩者 間에는 다소간 差異가 있다. 다시 말하면, 記事의 下限이 大阪市立圖書館 所藏「修書雜誌」는 1777年(正祖元年)까지임에 반하여, 探求堂本《稗林》所收의 그것은 1778年(正祖 2年, 戊戌)까지로 되고 있음이 다르다.

探求堂 景印 縮刷版本《稗林》의 底本은 趙潤濟씨의 收藏本이다. 趙潤濟씨는 同 景印縮刷版本의 刊行解題에서 그 原本의 來歷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本書는 元來 開城의 某氏의 所藏이던 原本을 閱某씨가 빌어다가 집에 筆士를 두고 베낀 覆寫本(再寫本)이다. 그 후 本書는 閱씨로부터 崔昌學씨에게로 넘어 갔었는데, 그 후 6·25 당시 나는 그 崔씨로부터 釜山에서 購入한 것인데, 6·25事變으로 인해 開城의 原本은 必是 없어진 것 같으니, 本書야말로 이제 와서는 天下의 唯一本이 된 셈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附言하기를 “鄙藏의 本書 原本에는 지금 여기에 景印하는것 以外에도 異本 正宗紀事 10冊과 異本 純祖紀事 11冊이 있으나, 이들은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除外하고 總 96種, 266卷, 169冊 만을 景印하였다. 諒解를 바란다(1969年 3月 記)”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本 探求堂本《稗林》이 末松保和씨가 言及한 두 가지의 그것과는 또 다른 異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趙潤濟씨 收藏本《稗林》은

11) loc. cit.

12) ibid. p. 247.

물론이고, 이를 底本으로 景印한 探求堂本 《稗林》은 靜嘉堂文庫本 125冊보다 그 所收書目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또한 唯一的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趙潤濟씨 收藏本의 所收書目이 96種, 冊數가 169冊이라는 점에서 보면, 靜嘉堂文庫本 보다 所收書目이 29種, 冊數가 44冊이 더 많은 것이 된다. 더구나 趙潤濟씨 收藏本 중에는 餘他的 《稗林》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探求堂 景印本에서는 景印에서 除外된, 이른바 異本正宗紀事 10冊과 異本 純祖紀事 11冊이 더 있다. 이를 探求堂景印本에 추가한다면 所收書目이 98種, 冊數가 190冊에 달하며, 이것을 다시 靜嘉堂 文庫本과 對比하여 보면, 趙潤濟씨 收藏本이 靜嘉堂文庫本 보다도 所收書目 31種, 總冊數가 65冊이나 더 많은 것이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위에서 말한 趙潤濟씨의 解題에서 보듯, 開城 某씨의 所藏이었었다고 하는 原本의 行方을 전혀 알 수 없는 지금, 그 原本을 閱某씨가 빌어다가 베낄 때 어느 정도 原本 그대로를 정확하게 베겼는지 알 수가 없다. 하여간 언젠가는 上記 靜嘉堂文庫本の 記事 內容과 探求堂本의 그것과를 對照하여 그 異同을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野史, 나아가서 野史叢書 자체는 그 구성의 체계 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수록하고 있는 資料的 內容에서 더욱 큰 價値를 찾아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나마 探求堂本 景印時 除外된 異本 正·純祖紀事 21冊까지도 아울러 刊行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다음으로 《大東野乘》의 現存本으로는 ①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寫本 72卷 72冊, ② (朝鮮)古書刊行會本 13冊(活印本)¹³⁾ 및 ③ 慶熙出版社 景印 縮刷版本 4冊¹⁴⁾이 있다.

奎章閣 所藏 寫本 72冊에 대한 形態書誌學的 內容은, 1965년에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서 刊行한 「奎章閣圖書目錄」 韓國本 史部 第1冊 p. 303에 대충 기록되어 있다.

古書刊行會本 13冊은 1909年, 「朝鮮群書大系」 第1期 第2로서 印行된 것으로, 淺見倫太郎씨의 解題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古書刊行會本과 群書大

13) 大東野乘, 서울(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09~1911, 13冊, 8, 560p.

系本이 別途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부르는 名稱上의 同書異名에 불과하다. 다만 古書刊行會本이란 刊行會의 명칭을 딴 것임에 반하여, 群書大系本이란 一連의 朝鮮 資料를 出版하는 叢書名에서 由來한 것이다.

探求堂本은 申奭鎬씨의 複刊序에 明記하듯, 古書刊行會本을 景印하여 4冊으로 縮刷한 것이다. 既往의 古書刊行會本은 活印時 많은 誤字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모처럼의 事業을 함에 있어서 奎章閣 所藏 寫本을 底本으로하지 않고 古書刊行會本을 景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古書刊行會本 또는 探求堂本 《大東野乘》의 原本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나아가서는 原 寫本이 몇 종류가 있었느냐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몇 가지의 異說이 있는 듯 하다. 즉 淺見倫太郎씨는 古書刊行會本 解題에서 “本書의 原本은 統監府 秘庫 所藏 寫本 72冊, 所收書目 57種을 底本으로 한 것”이며, “目次, 凡例 및 輯錄者 姓名을 不錄, 板心에 「桂蒼山房」이라고 된 종이를 사용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서 末松保和씨는 “本 群書大系本(13冊)의 原本은 舊 奎章閣本(寫本 72冊)으로 推定되고 있다”¹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위 兩人은 같은 古書刊行會本(群書大系本) 13冊의 原本을 말하여 한 분은 統監府 所藏本으로, 다른 한 분은 舊 奎章閣本으로 推定하고 있다.

한편 申奭鎬씨는 探求堂本 《大東野乘》의 複刊序文에서 “오늘 날 本書의 寫本을 求하는 것은 극히 힘드는 일로서 서울大學校 所藏本 이외에는 들은 바 없으며, 統監府에 있던 寫本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여, 두 가지 別個의 寫本(原本)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古書刊行會本이나 探求堂本 《大東野乘》의 原本(寫本)이 무엇이며 또 몇 가지의 寫本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① 寫本이 애당초 두 가지가 있는 경우, ② 하나 밖에 없는 경우의 두 갈래로 집약된다. 이러한 의문 또는 推定에 머문 궁금증을 풀어 보기 위하여 筆者는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寫本(72冊)을 직접 가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古書刊行會本 解題의 내용으로 보아 解題者 淺見倫太郎씨는 原本을 직접 보고 解題하였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原本을 조사함

14) 大東野乘, 서울, 慶熙出版社, 1968, 4冊.

에 있어 筆者의 주요 관심사는 淺見倫太郎씨가 말한 「桂蒼山房」이라고 된 종이를 사용한 것인가의 與否에 있었다. 왜냐하면, 奎章閣 所藏 原本(寫本)이 과연 그가 말한대로 桂蒼山房이라고 印出된 종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原本과 古書刊行會本の 내용을 對照해 보기 전에도 그것이 古書刊行會本の 底本이고, 따라서 同一한 原本의 所屬에 대한 差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조사한 내용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原本의 各冊 表紙 左上端에는 叢書名 「大東野乘」 및 卷數表示가 있고, 右上端에는 個別野史名과 그 分卷表示가 적혀 있다. 크기는 31.5×20 cm, 四周單邊, 半葉匡郭은 21×13.8cm, 有界, 10行20字의 精寫本이다. 그리고 「蒼擊致文 楊山世家趙乘稷藏書之印」이라 한 것으로 보아 本 寫本은 元來 趙乘稷의 所藏本이었음을 알 수 있다. 版心 上端에는 「桂蒼山房」4字, 同下端에는 張數表示를 위한 「第」字 1字가 印刷된 종이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冊 속에는 위와 같은 印刷가 없는 종이가 다소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桂蒼山房」 및 「第」字가 印刷된 종이를 사용한 것이 本 寫本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도 淺見倫太郎씨나 末松保和씨가 各各 統監府 所藏 寫本, 또는 舊 奎章閣 所藏 寫本이라고 한 것이 결코 別個의 寫本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原本은 元來 舊 奎章閣 所藏本이던 것을, 光武 9年(1905) 乙巳保護條約 締結 후 이어서 統監府가 設置되자, 統監府에 移管 保存했던 것이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짐작은, 筆者가 이른 바 「統監府 所藏本」이란 말이 생기게 된 由來를 조사하던 중,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의 白麟 閱覽課長의 후의에 힘입어 前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圖書關係書類綴」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한결 굳어졌다. 同 書類綴은 1911년에 舊韓國政府로부터 取調局으로 넘긴 書籍解由書였기 때문이다. 同 書類綴 表紙에 「起明治 44年4月」이라는 但書가 있으므로, 1911年 4月分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同 書類綴 明治 44年(1911) 6月7日 文書는 다른 아닌 《大東野乘》 寫本 72卷을 前 朝鮮總督府 取調局長 石塚英藏이 接受 確認한 것이었다.

15) 末松保和, Op. Cit., p. 248.

그런데 古書刊行會本 《大東野乘》이 活版印出된 것은 1909년이었으므로, 上記 書類綴(解由書)의 내용은 그 보다 2年가량 뒤의 기록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稿에서 굳이 그 내용을 참고로 적어본 뜻은, 이것을 미루어 總督府가 設置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統監府가 書籍을 管理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뒷받침이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古書刊行會本 《大東野乘》이 刊印될 당시의 統監府 文書, 바꾸어 말하면 《大東野乘》寫本 72卷 72冊을 統監府에서 接受 保管한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이 때에도 또한 어떤 形式으로나마 그에 대한 解由書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Ⅲ. 所收書目 相互比較

이상에서 《稗林》 및 《大東野乘》의 現存本에 대해서 대충 정리하여 보았다. 그런데 趙潤濟씨가 探求堂 景印本 《稗林》의 解題 속에서, “同類의 野史叢書類라 하지마는 그 編纂의 主旨가 또 같지는 않은 것 같다. …《大東野乘》과 本書 만을 比較하여 보더라도 《大東野乘》은 詩話·隨錄을 주로 한 것 같은데, 本書 (稗林)는 그런 것이 전연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는 黨爭의 史話를 위주로 하여 編纂하였다.”라고 하듯, 兩書 사이에는 크게 보아 어떤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兩書 중에는 대부분의 野史叢書가 그러하듯, 상당한 수의 共通書名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同名異書 또는 異名同書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論外로 치고라도, 적어도, 共通書名이 무엇이며 반대로 한편에만 수록되어 있는 固有書名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사해 두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제 兩書의 所收書目 相互比較表를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探求堂 景印 縮刷版本 《稗林》과 靜嘉堂文庫本 《稗林》 所收書目を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 靜嘉堂文庫本 《稗林》은 현물을 볼 수 없으므로, 末松保和, 前掲書의 「李朝의 野史叢書에 대하여」 所載 靜嘉堂文庫本 《稗林》 所收書目に 의거하였다. (이하의 表는 書名 가나다順임)

2. 靜嘉堂文庫本《稗林》所收 固有書目(探求堂本《稗林》과의 對比)

書 名	著 者	書 名	著 者
桐巢漫錄	南夏正	銀臺日記	李德悅
梅溪叢話	曹伸	定弁錄	
詩話彙編		秋江冷話	孝溫南
列朝紀事		稗官雜記	
尹推懷驪事始末			魚叔權

3. 探求堂 景印本《稗林》所收 固有書目(靜嘉堂本《稗林》과의 對比)

書 名	著 者	書 名	著 者
良翁沈墨	李 堅	純祖記事	
谷雲雜錄	金壽增	辛壬紀年提要	具駿遠
公私見聞錄	鄭載崙	辛壬紀年提要補編	
己巳錄		辛壬紀年提要續編	
崎翁漫筆	鄭弘溟	我我錄	南紀濟
南遷日錄	宋相琦	安家奴案	
農叟李公遺稿抄	李聞政	良役變通議	
丹巖漫錄	閔鎮遠	燕行襍識	李頤命
童蒙筮告		五山說林(草藁)	車天略
遯齋日記	李 滌	雲巖雜錄	柳成龍
梅翁閒錄	朴亮漢	留齋日記	李廷毓
名山秘藏	朴東亮	壬辰遺事	趙 鎭
戊戌辨誣錄	李廷龜	接倭歷年考	李孟休
白野紀聞錄	趙錫周	正宗記事	
病後漫錄	崔奎瑞	哲宗記事	
山中獨言	申 欽	清江思齊錄	李濟臣
三官記	李 緯	晴窓軟談	申 欽
疎齋漫錄	李頤命	退憂漫筆	金壽興
隨聞錄	李聞政	鶴山樵談	許 筠
修書雜志	李宜哲	憲宗記事	
壽春雜記	李廷馨	侯鯖瑣語	李濟臣

위 세 가지의 表에서 보면, 現存 靜嘉堂文庫本《稗林》과 探求堂本《稗林》에서의 共通書目은 57種, 靜嘉堂文庫本《稗林》所收 固有書目은 9種, 探求堂本《稗林》所收 固有書目은 42種이다. 따라서 靜嘉堂庫文本《稗林》所收

總 書目은 66種, 探求堂本 《稗林》 所收 總 書目은 99種이다. 다만 探求堂本 《稗林》 所收 總書目 99種은, 第5輯의 「月汀漫筆」(尹根壽)의 附書로 되어 있는 「梧陰雜說」(尹斗壽)과 「玄洲懷恩錄」(尹新之) 두 가지가 비록 分量은 극히 적으나 엄연히 다른 著者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독립된 書目으로 잡았으며, 또 第8輯 「谷雲雜錄」(金壽增)의 附書로 되어 있는 「退憂漫筆」(金壽興)을 독립된 書目으로 잡아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趙潤濟씨가 解題에서 지적한 總 書目 96種 보다 3種이 증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景印에서 除外되었다는 이른 바 異本 「正·純祖紀事」 2種도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까지를 합산한다면 都合 101種이 된다.

探求堂本 《稗林》과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 所收書目を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

1. 兩書 所收 共通書目(探求堂本 《稗林》과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의 對比)

書 名	著 者	書 名	著 者
甲辰漫錄	尹國馨	五山說林(草藁)	車天略
癸甲日錄	禹性傳	梧陰雜說	尹斗壽
崎翁漫筆	鄭弘溟	龍泉談寂記	金安老
寄齋雜記	朴東亮	雲巖雜錄	柳成龍
東閣雜記	李廷馨	月汀漫筆	尹根壽
聞韶漫錄	尹國馨	柳川劄記	韓浚謙
浩溪記聞	金時讓	陰崖日記	李紆
石潭日記	李珥	青坡劇談	李陸
松溪漫錄	權應仁	筆苑雜記	徐居正
松窩雜說	李鑿	荷潭破寂錄	金時讓
諛聞瑣錄	曹仲	玄洲懷恩錄	尹新之

2. 探求堂本 《稗林》 所收 固有書目(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과의 對比)

書 名	著 者	書 名	著 者
良翁疣墨錄	李鑿	谷雲雜錄	金壽增
甲寅錄		公私見聞錄	鄭載崙
江都錄	南磻	關北紀聞	金時讓
癸甲錄		掛一錄	

構禍事蹟	宋 疇 錫	榭對說話	宋 時 烈
己 已 錄	安 邦 俊	安家變通	鄭 太 和
己 丑 記	羅 良 佐	陽役坡年	李 頤 命
己 丑 獄	金 昌 翕	燕行得襟	鄭 介 清
羅 金 往	宋 相 琦	愚 山 問	安 邦 俊
南 遷 日	李 聞 政	牛 齋 日	李 廷 菴
農 叟 公 遺 稿 抄	金 閔 鎮 錫	留 齋 史	李 趙 持 謙
丹 巖 漫 錄	李 亮 漢	銀 臺 日	李 趙 元 翼
東 閣 散 告	朴 東 亮	李 相 國	李 具 樹 邦
童 蒙 筮 日 記	羅 良 佐	二 旬 事	安 趙 孟 休
遜 齋 翁 山 秘 錄	李 廷 龜	壬 辰 歷 年	李 德 泗
名 村 雜 錄	柳 希 錫	接 宗 泉 村 君 日 答 日 事 記	李 喜 朝 紳
戊 辨 誣 錄	趙 奎 瑞	正 竹 芝 晉 哲 清 晴 菁 忠 澤 退 楓 巖 鶴 鶴 憲 黃 黃 晦 效 侯	李 姜 濟 臣
眉 巖 野 漫 日 錄	鄭 金 正	江 窓 川 逆 堂 憂 輯 話 雜 樵 記 問 記 瑣 雜 瑣	李 姜 敏 輔 植 興 光 筠
白 後 遷 日 撫 獨 言 記	申 欽 興	與 宗 窓 川 逆 堂 憂 輯 話 雜 樵 記 問 記 瑣 雜 瑣	李 申 姜 李 李 金 柳 許
北 思 山 三 西 疎 松 宋 隨 修 壽 純	金 申 欽 興 命 生 玉 政 哲 馨 遠	江 窓 川 逆 堂 憂 輯 話 雜 樵 記 問 記 瑣 雜 瑣	李 申 姜 李 李 金 柳 許
辛 壬 辛 辛 我	具 駿 遠 濟	江 窓 川 逆 堂 憂 輯 話 雜 樵 記 問 記 瑣 雜 瑣	李 申 姜 李 李 金 柳 許
我 我 錄		江 窓 川 逆 堂 憂 輯 話 雜 樵 記 問 記 瑣 雜 瑣	李 申 姜 李 李 金 柳 許

3. 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所收固有書目(探求堂本《稗林》의 對比)

書 名	著 者	書 名	著 者
遺 閑 雜 錄	沈 守 慶	癸 未 記 事	李 誠 中

癸亥靖社錄		延平日記	申翊聖
光海朝日記		慵齋叢話	成成倪
光海初喪錄		乙巳傳聞錄	李中悅의子
己卯錄別集		癡川日記(日錄)	
己卯錄補遺	金正國己卯錄 安聯(補遺)	逸史記聞	
己卯錄續集		紫海筆談	金時讓
寄齋史草	朴東亮	長貧(居士)胡撰	尹耆獻
己丑錄	黃赫	再造藩邦志	申靈
己丑錄續		丁戊錄	黃有詹
亂中雜錄	趙慶男	竹窓閑話	李德洞
(亂中雜錄)續雜錄	趙慶男	清江(先生)瑣語	李濟臣
默齋日記	安邦俊	青白(堂)日記	青白堂
丙辰丁巳錄	任輔臣	秋江冷話	南孝溫
師友名行錄	南孝溫	稗官雜記	魚叔權
象村雜錄	申欽	海東樂府	沈光世
松都紀異	李德洞	海東野言	許筠
時政非	鄭澈	海東雜錄	
		混定編錄	尹宣舉

위의 세 가지 表에서 보면, 探求堂本 《稗林》과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과의 共通書目은 22種, 探求堂本 《稗林》所收 固有書目은 76種,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의 固有書目은 37種이다. 그러므로, 探求堂本 《稗林》所收總書目은 98種,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所收 總書目은 59種이 된다. 叢書名은 다를지라도 兩書 中の 共通書目은 22種이나 됨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野史叢書에 收錄된 共通書의 記事 內容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靜嘉堂文庫本 《稗林》과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所收 書目을 對照하면 다음과 같다.

1. 兩書 共通書目(靜嘉堂文庫本 《稗林》과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과의 對比)

書名	著者	書名	著者
甲辰漫錄	尹國馨	寄齋雜記	朴東亮
癸甲日錄	禹性傳	東閣雜記	李廷馨

聞韶漫錄 涪溪記 石潭日 松溪漫 松窩雜 諛聞瑣 梧陰雜 龍泉談 雲巖雜	錄聞記 錄說錄 錄說錄 錄說錄 錄說錄 錄說錄 錄說錄 錄說錄	尹國馨 金時讓 李權珥 李應仁 李應墜 曹伸壽 尹斗老 金安龍 柳成龍	月汀漫筆 柳川劄 陰崖日 青坡劇 秋江冷 穉官雜 筆苑雜 荷潭破 玄洲懷	漫劄記 日劇談 冷話記 雜記錄 寂錄錄 懷恩錄	尹根壽 韓波謙 李紆陸 李孝溫 南叔權 魚居正 徐時讓 金時讓 尹新之
--	--	---	--	--	---

2. 靜嘉堂文庫本《稗林》所收 固有書目(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과의 對比)

書名	著者	書名	著者
甲寅錄 江都錄 癸甲錄 關北紀 掛一 構禍事 己丑獄 己丑獄 羅金佳 東閣散 桐巢漫 梅溪叢 明村雜 眉巖日 北遷齋 思齋日 西郭雜 松江行 宋門記 詩彙 陽對 陽坡	南磬 金時讓 安邦俊 羅良佐 金昌翁 南夏正 曹伸仲 羅良佐 柳希春 鄭忠信 金正國 李文與 金長生 金鎮玉 宋時烈 鄭太和	列朝紀 愚得事 牛山答 尹推懷 銀臺史 銀臺日 李相國 二旬事 丁弁蹟 竹泉日 芝村答 晉與君 青川日 忠逆 澤堂家 楓巖輯 鶴林雜 黃江問 黃兔答 晦隱瑣 効雜	鄭介清 安邦俊 趙持謙 李德悅 李元翼 具樹勳 安邦俊 李德洞 李喜朝 姜綖輔 李敏輔 柳光翼 韓弘祚 李廷馨 南鶴鳴 高尙顏

3. 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所收 固有書目(靜嘉堂本《稗林》과의 對比)

書名	著者	書名	著者
遺閑雜錄	沈守慶	松都紀異	李德洞
癸未記事		時政非	鄭澈
癸亥靖社錄		延平日記	申翊聖
光海朝日記		五山說林草藁	車天輅
光海初喪錄		慵齋叢話	成倪
己卯錄別集		乙巳傳聞錄	李中悅의子
己卯錄補遺	金正國 (己卯錄) 安璿 (補遺)	凝川日記	
己卯錄續集		逸史記聞	金時讓
琦翁漫筆	鄭弘溟	紫海筆談	尹耆獻
寄齋史草	朴東亮	長貧居士胡撰	申靈
己丑錄	黃赫	再造藩邦志	黃有詹
己丑錄續		丁戊錄	李德洞
亂中雜錄	趙慶男	竹窓閑話	李濟臣
(亂中雜錄)續雜錄	趙慶男	清江(先生)瑣語	青白堂
默齋日記	安邦俊	青白(堂)日記	沈光世
丙辰丁巳錄	任輔臣	海東樂府	許筠
師友名行錄	南孝溫	海東野言	
象村雜錄	申欽	海東雜錄	尹宣舉
		混定編錄	

위의 세 가지 표에서 볼 때, 靜嘉堂文庫本《稗林》과 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과의 共通書目은 22種, 靜嘉堂文庫本《稗林》所收 固有書目은 44種, 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所收 固有書目은 37種이다. 따라서 靜嘉堂文庫本《稗林》所收 總書目은 66種, 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所收 總書目은 59種이 된다. 靜嘉堂文庫本《稗林》과 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과를 對比하여 兩書의 共通書目이 22種임과 마찬가지로, 앞서 본 探求堂本《稗林》과 慶熙出版社本《大東野乘》과의 對比로 나타난 共通書目 또한 22種임은 주목된다. 바꾸어 말하면, 위와 같이 各各 두 叢書를 對比한 결과 探求堂本《稗林》所收 固有書目은 76種, 靜嘉堂文庫本《稗林》所收 固有書目은 44種으로서, 그 固有書目에 있어서는 兩者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共通書目에

있어서는 同一한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相互比較表를 종합하는 뜻으로, 探求堂本 《稗林》, 末松保和, 『李朝 野史叢書十種 所收書目』¹⁶⁾ 중의 靜嘉堂文庫本 《稗林》 및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 所收書目的 一覽表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票는 所收書目)

書名	著者	稗林		野乘
		靜嘉堂本	探求堂本	慶熙出版社本
良翁疣墨	李 璽		○	
甲寅錄		○	○	
甲辰漫錄	尹 國 馨	○	○	○
江都錄	尹 南 磻	○	○	
遣閑雜錄	沈 守 慶			○
癸甲錄		○	○	
癸甲日記	禹 性 傳	○	○	○
癸未記事	李 誠 中			○
癸亥靖社錄				○
谷雲雜錄	金 壽 增		○	
公私見聞錄	鄭 載 崙		○	
關北紀聞	金 時 讓	○	○	
光海朝日記				○
光海初喪錄				○
掛一錄		○	○	
構禍事蹟集	宋 疇 錫	○	○	
己卯錄別集				○
己卯錄補遺	金正國(己卯錄) 安 璐(補遺)			○
己卯錄續集				○
己巳錄			○	
畸翁漫筆	鄭 弘 溟		○	○
寄齋史草	朴 東 亮		○	○
寄齋雜記	朴 東 亮	○	○	○
己丑記事	安 邦 侯	○	○	○
己丑錄	黃 赫			○
己丑錄續案				○
己丑獄案		○	○	

16) *ibid.* p. 252~265.

Ⅳ. 《稗林》(探求堂本)과 《大東野乘》(慶熙出版社本)의 記事 形式 比較

本稿에서 다룬 靜嘉堂文庫本 《稗林》은 末松保和씨의 前掲 論文『李朝의 野史叢書에 대하여』속에서 그 所收書目 만을 기록한 것이었다. 따라서 兩稗林 즉 探求堂本 《稗林》과 靜嘉堂文庫本 《稗林》과의 記事 形式을 比較해 볼 수는 없다. 이에 探求堂本 《稗林》과 慶熙出版本 《大東野乘》과의 共通書目 22種의 記事 形式을 比較해 보기로 한다. 文章 內容의 異同을 살피기에 앞서서 그 記事 形式만이라도 比較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稗林》과 《稗林》을 比較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른 名目的 叢書에 收錄된 共通書를 가지고 比較하여 보는 것이 더욱 뜻 깊은 일이기도 한 것이다.

① 「甲辰漫錄」, 尹國馨

記事는 宣祖 29年 丙申에서 시작하여 同 41年 戊申에 이르고, 記事의 形式이나 內容에 있어 兩書 모두가 同一하다.

② 「癸甲日錄」, 禹性傳

《野乘》은 宣祖 16年 癸未 6月朔 辛亥에서부터 同 17年 甲申 7月 乙酉까지를 기록하였으나, 《稗林》에는 《野乘》의 처음 약 19行이 생략된 것을 비롯하여 곳곳에 생략된 곳이 너무나 많다. 반대로 《野乘》에도 빠진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리고 《稗林》의 記事 끝에는 宣祖 33年 庚子 西厓跋文이 있으나, 《野乘》에는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稗林》의 記事는 생략된 곳이 많아 《野乘》의 記錄으로 보충되어야 사실의 파악이 용이하게 된다.

③ 「畸翁漫筆」, 鄭弘溟

《野乘》에는 끝에 「題畸翁漫筆卷後」(丙子孟春上弦後四日溟人書) 10行이 누락되었다.

④ 「寄齋雜記」, 朴東亮

《野乘》에는 끝에 附書「寄齋雜記跋」(世采謹識 戊戌四月中旬九日) 및 「第2跋」(後十九歲 丙辰九月日 世采書)이 없다. 한편 《稗林》에는 人名 註記 頭註가 곳곳에 있으나 《野乘》에는 없다.

⑤ 「東閣雜記」, 李廷馨

내용이 완전히 同一하다.

⑥ 「聞韶漫錄」, 尹國馨

《野乘》에는 《稗林》에서와 같은 人名註記가 없다. 이런 점에서는 《稗林》이 參考하기에 다소 편리하다.

⑦ 「涪溪記聞」, 金時讓

《野乘》에는 끝에 「南千壽者 鍾城士豪也」로 시작된 7행이 없다.

⑧ 「石潭日記」, 李珥

내용은 兩書가 같다.

⑨ 「松溪漫錄」, 權應仁

《野乘》에는 「松溪漫錄」(上) 끝에 70행이 생략되었다.

⑩ 「松窩雜說」, 李陔(暨)

내용이 같다.

⑪ 「謏聞瑣錄」, 曹伸

《野乘》에는 《稗林》에서와 비교하여 13 곳에 걸쳐 1,589행이 누락된 것이 있고, 반대로 《稗林》에는 2 곳의 38행이 누락되었다.

⑫ 「五山說林(草藁)」, 車天輅

내용은 같다.

⑬ 「梧陰雜說」, 尹斗壽

《稗林》에는 「梧陰雜說」을 「月汀漫筆」(尹根壽)의 附錄으로 취급하여 月汀漫筆 끝에 「附 梧陰雜說 尹斗壽 著」 및 「附 玄洲懷恩錄 尹新之著」로 附書하고 있으나, 《野乘》에서는 「梧陰雜說」을 독립된 項目으로 삼아 「月汀漫筆」 바로 다음에 收錄하였으며, 《稗林》에서 보는 附書 「玄洲懷恩錄」은 없다.

⑭ 「龍泉談寂記」, 金安老

《野乘》에는 「嘉靖旃蒙作噩後禧月上澣書忍性堂」의 古干支紀年 跋文이 初頭に 수록되어 있으나, 《稗林》에는 맨 끝에 수록하여 서로 순서 만이 뒤 바뀌어 있다. 내용은 같다.

⑮ 「雲巖雜錄」, 柳成龍

내용은 같고, 《稗林》에는 역시 곳곳에 人名頭註가 있음에 반하여 《野乘》에는 그것이 없다.

⑯ 「月汀漫筆」, 尹根壽

앞서 「梧陰雜說」(尹斗壽) 項에서 言及한 대로, 《稗林》에는 「梧陰雜說」과 「玄洲懷恩錄」(尹新之)을 「月汀漫筆」의 附錄으로 追加하였으나, 《野乘》에는 「梧陰雜說」만을 독립된 項目으로 다루어 「月汀漫筆」 바로 다음에 수록하였을 뿐 「玄洲懷恩錄」은 없다.

⑰ 「柳川筭記」, 韓浚(俊)謙

《稗林》에는 끝에 「附 破牀雜記」 140行이 追加되어 있으나, 《野乘》에는 이것이 없다.

⑱ 「陰崖日記」, 李 耜

내용은 같다. 兩書 모두 附錄 「附 與柳從龍書」, 「偶見安圃樵所稱并錄篇末」, 「請還削柳子光翊戴錄疏」, 「尙友堂跋」 및 「自撰誌」를 수록하였다.

⑲ 「青坡劇談」, 李 陸

내용이 같다.

⑳ 「筆苑雜記」, 徐居正

兩書의 내용은 같다. 《野乘》에는 初頭에 序文 「龍集丙午仲冬日南至猶子奉直郎行吏曹佐郎彭召序」, 「成化丙午仲冬有日門人通善郎掌隸院司議表沿洙序」 및 「成化紀元之二十三年季秋日門生奉列大夫咸陽郡守夏山曹偉叙」 세 가지를 수록하고, 末尾에 跋文 「成化紀元二十三年九月日門人觀察使漢原李世佐謹跋」을 수록하고 있으나, 《稗林》에는 이 모두를 末尾에 몰아서 수록하였다. 한편 《稗林》에는 「筆苑雜記」(上)은 第5輯 第41張 B 第4行까지로 끄치고, 筆苑雜記(下)는 第42張 A 第1行에서 시작하되, 第1行에서 第7行까지의 7行에 걸쳐서는 다음과 같은,

寒臯觀外史 卷之十一

目錄

筆苑雜記 下

附 筆苑雜記序 猶子彭召

附 筆苑雜記序 表沿洙

附 筆苑雜記序 曹 偉

附 筆苑雜記跋 李世佐

「目錄」項目을 수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探求堂本 《稗林》의 「筆苑雜記」(下) 중의 전부 또는 일부분(卷 11)은 원래 潭庭 金龜가 輯成한 세 가지의 叢書인 「叢書」, 「倉可樓外史」 및 「寒臯觀外史」 중의 「寒臯觀外史」本을 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㉑ 「荷潭破寂錄」, 金時讓

《野乘》에는 《稗林》에서의 第1張 A 第3行에서 第3張 B 第2行까지의 50行, 第35張 A 第3行에서 第36張 A 第7行까지의 25行 및 第38張 B 第20行에서 第39張 A 第6行까지의 7行, 도합 82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이 이외의 내용은 兩書가 같다.

이상에서 探求堂本 《稗林》과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과의 共通書에 대한 記事 形式의 異同을 대충 比較하여 보았다. 이렇게 볼 때, 兩書 간에는 상당한 부분에 걸쳐 出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原本을 베길 때에 轉寫者의 主觀에 따라 取舍選擇한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에서 누락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 어떤 사실을 기록한 내용은 대체로 同一한 것이다. 다만 《稗林》에는 《野乘》에서와는 달리 곳곳에 人名註記가 있고, 《野乘》에는 《稗林》에서 생략한 月·日·日辰 및 日氣 등의 기록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V. 結 語

이상으로 우리 나라 現存 野史叢書 중에서도 대표적인 叢書라 할 《稗林》 및 《大東野乘》의 종류 및 그 收藏·傳來經緯, 各 叢書 所收書目, 그리고 探求堂本 《稗林》과 慶熙出版社本 《大東野乘》과의 記事形式에 대하여 조사 비교하여 보았다.

各 叢書 所收書目を 相互比較함을 통해서, 叢書 서로간의 共通書目과 固有書目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려, 결과적으로 얼마 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記事形式의 비교를 통해서, 한 거름 나아가서 비록 共通書(同名同書)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叢書에 收錄된 書目的 記事形式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단적으로 엿 볼 수 있었다. 叢書 서로간의 記事形式의 比較 문제와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異本 同名叢書 중의 共通書 서로간의 記事形式의 比較가 重要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뜻에서 本稿는, 앞으로 靜嘉堂文庫本 《稗林》이 景印 出版되어, 이것과 探求堂本 《稗林》 所收 共通書目 간의 記事形式, 나아가서는 文章의 내용까지를 比較해 보기 위한 제 일단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erim and
the Taedong Yasung

—Unofficial History Collections of the Yi Dynasty—

Hyung-Woo Chung*

〈ABSTRACT〉

The P'aerim and the Taedong Yasung are the two better known among unofficial history collections of the Yi Dynasty still available. The compilers and writers of unofficial historical records generally were people without official connection with the incidents recorded, and were thus in a position to be critical in their evaluation. Therefore, in order to gain a balanced view of Korean history, these unofficial history sources must also be consulted.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various unofficial history collections, even though the titles may be identical.

For this reason, the writer has ma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tents of both the P'aerim and the Taedong Yasung. As a result, va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llections are noted. This points out the need for continued research on collections of unofficial historical record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Science, Yonsei University.